

#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속 가격 부담도 점증 -

## 목 차

I. 원유

II. 곡물

III. 금속

(첨부)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포지션 차트

##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속 가격 부담도 점증

김희진 | 책임연구원(3705-6225)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 ■ [국제원자재가격지수] 5월 에너지 부문 상승, 농산물 및 비철금속은 하락(전월말 대비)

- 에너지 비중이 높은 S&P GSCI(S&P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지수는 3.9% 상승. (하위 부문별로 에너지 +8.0%, 농산물 -1.5%, 산업금속 -6.2%, 귀금속 -3.6%, 축산물 -0.6% 등).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Index) 지수는 2.7% 상승
  - 美 휘발유(+17.5%), 美 천연가스(+12.4%), 브렌트(+12.3%), 두바이(+10.4%), WTI(+9.5%), 소맥(+4.2%) 등 상승. 주석(-13.9%), 니켈(-10.4%), 알루미늄(-8.7%), 아연(-4.7%), 구리(-3.3%) 등 하락

### ■ [전망] 원자재가격 고평가 인식에도 불구하고 러-우 전쟁이 지속되는 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현실화될 경우 반락할 가능성 잠재

- 유가 : EU의 러시아 석유 부분 금수, 성수기 진입 등으로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가격 부담과 경기둔화 우려 등이 상승폭을 제한할 소지. 중국의 봉쇄 완화, 정제마진 증가, 美 드라이빙 시즌 진입 등 유가 상승압력이 건재
- 곡물價 : 전반적인 수급불안이 이어지고 있으나 북반구 파종이 마무리되고 높은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도 증대되고 있어 방향성 탐색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
- 비철금속價 : 주요국 경제지표 둔화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中 경기둔화 우려, 통화긴축 가속 전망 등으로 단기적으로 비철금속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무계. 친환경 인프라 수요로 중장기 상승기조는 유효하나 경기둔화 등으로 하방압력이 증대
-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 가격 전망(5.31일 기준)

	5월(a) <sup>1)</sup>	'22.2Q(f) <sup>2)</sup>	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WTI	109.3	110 (-4)	103 (-6)	94 (-2)	92 (+7)
옥수수(\$/부셸)	7.890	7.78 (+0.03)	7.75 (+0.25)	7.25 (-0.15)	7.00 (-)
소맥(\$/부셸)	11.409	11.50 (-0.45)	12.00 (+0.43)	10.33 (-0.81)	9.40 (-)
구리(\$/톤)	9,366.5	10,000 (-200)	10,000 (-133)	9,833 (-)	9,542 (-42)
알루미늄(\$/톤)	2,857.8	3,450 (-50)	3,400 (-125)	3,225 (-)	3,217 (-17)

주: 1) 5월 평균값(average).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표 1〉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sup>1)</sup>

		'21년 평균	'22년 평균	4/29	5/31	전월말 대비(%)	전년말 대비(%)	연중최고 <sup>2)</sup>	연중최저 <sup>2)</sup>
Index	CRB	209.22	284.29	308.27	316.54	+2.7	+36.2	320.52(5/27)	232.37(1/3)
	S&P GSCI	517.32	701.11	756.75	786.45	+3.9	+40.1	853.27(3/8)	558.47(1/3)
	에너지	229.53	338.90	375.44	405.31	+8.0	+60.6	429.56(3/8)	250.00(1/3)
	농산물	414.77	528.84	571.59	562.85	-1.5	+26.4	607.01(5/17)	440.66(1/3)
	산업금속	456.60	545.31	541.82	508.21	-6.2	+1.8	757.84(3/8)	485.79(5/12)
Oil & Gas	WTI(\$/배럴)	68.08	99.20	104.69	114.67	+9.5	+52.5	130.5(3/7)	74.27(1/3)
	두바이(\$/배럴)	69.01	100.35	106.04	117.10	+10.4	+53.1	132.47(3/9)	75.62(1/3)
	브렌트(\$/배럴)	70.95	102.33	109.34	122.84	+12.3	+57.9	139.13(3/7)	77.04(1/3)
	휘발유(\$/배럴)	89.13	130.27	145.83	171.38	+17.5	+83.1	174.83(5/31)	92.84(1/3)
	천연가스(\$/mBtu)	3.723	5.728	7.244	8.145	+12.4	+118.4	9.401(5/26)	3.638(1/3)
Agriculture	소맥(\$/부셸)	7.020	9.895	10.438	10.875	+4.2	+41.1	13.40(3/4)	7.355(1/7)
	옥수수(\$/부셸)	5.819	7.187	8.183	7.535	-7.9	+27.0	8.27(4/29)	5.8475(1/3)
	대두(\$/부셸)	13.747	16.086	17.083	16.833	-1.5	+26.7	17.65(2/24)	13.32(1/3)
	쌀(\$/cwt)	13.34	15.77	17.09	17.55	+2.7	+19.9	18.155(5/16)	14.35(1/18)
	원당(¢/파운드)	17.88	18.97	19.35	19.40	+0.3	+2.8	20.51(4/14)	17.6(1/10)
Metals	금(\$/온스)	1,799.0	1,884.1	1,896.9	1,837.4	-3.1	+0.4	2,070.5(3/8)	1780.35(1/28)
	구리(\$/톤)	9,293.5	9,888.8	9,769.5	9,447.5	-3.3	-2.8	10,845(3/7)	8,938(5/12)
	알루미늄(\$/톤)	2,485.9	3,175.8	3,052.5	2,787	-8.7	-0.7	4,073.5(3/7)	2,679.5(5/10)
	니켈(\$/톤)	18,466.9	27,914.7	31,771	28,392	-10.6	+36.8	55,000(3/7)	20,175(3/9)
	아연(\$/톤)	3,007.3	3,835.3	4,107	3,913.5	-4.7	+10.7	4,896(3/8)	3,451(5/13)
	납(\$/톤)	2,189.4	2,298.2	2,260.5	2,182	-3.5	-5.3	2,700(3/8)	2,025(5/19)
	주석(\$/톤)	31,172.4	41,377.1	40,259	34,670	-13.9	-10.8	51,000(3/8)	32,100(5/12)
친환경에너지 관련 품목									
Solar	폴리실리콘(\$/kg)	24.57	32.30	32.12	32.28	+0.5	+10.7	33.2(3/2)	29.16(1/3)
Batteries	코발트(\$/톤)	51,577.1	76,807	82,000	7,4000	-9.8	+5.0	78,000(3/7)	61,000(1/3)
Renewable	에탄올(\$/갤런)	2.11	2.16	2.16	2.16	-	+1.1	2.22(1/3)	2.22(1/3)
CO <sup>2</sup>	탄소배출권(€/톤)	53.63	83.04	84.04	83.66	-0.5	+4.3	97.88(2/8)	55.47(3/2)

주 : 1) WTI 및 휘발유, 천연가스는 NYMEX 근월물 가격, 브렌트유는 ICE 근월물 가격, 두바이유는 현물가격, 농산물은 CBOT, ICE 근월물 가격, 금속, 코발트는 LME 근월물 가격(금은 현물가격), 폴리실리콘은 PV Insights의 All Grades 주간 평균 현물가격, 탄소배출권은 ICE 근월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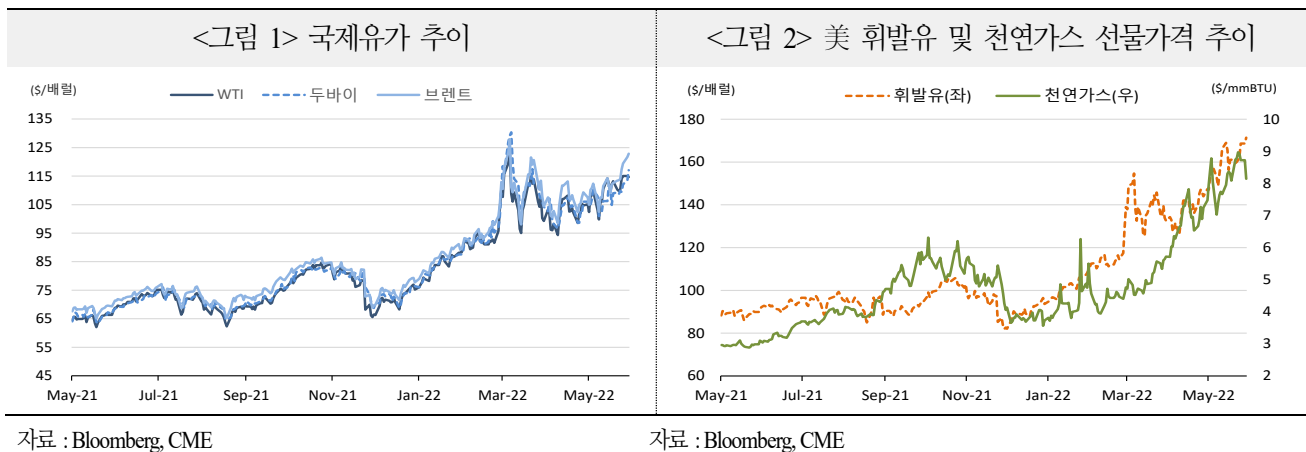
2) 연중 최고 및 최저는 '22년 1월 3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장중가격 기준. 적색은 전월중 기준 기록 경신을 의미.

자료 : Bloomberg

## I. 원유

### □ [동향] 5월 국제유가는 EU의 러시아 석유금수 부분 합의 등으로 월말 상승폭 확대

- WTI 선물가격, 5.31일 \$114.67로 전월말 대비 +9.5%
  - EU의 러시아산 석유금수 부분적 합의, 중국의 봉쇄 완화, 석유제품 수요 호조, 계절적 성수기 진입, 원유 재고감소세 등 타이트한 수급으로 강세. 다만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달러강세, 수요둔화 우려 등은 상승폭 제한
  - 美 휘발유 가격은 수요 호조 속 높은 정제마진 등으로 초강세(\$171.38, +17.5%). 美 천연가스도 러시아의 對유럽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급등(\$8.145, +12.4%)



### □ [주요 변수] EU의 러시아 석유 부분 금수, 원유재고, 수요 전망, 미국 제재 등

〈표 2〉 강세/약세 요인별 구분

강세 요인	약세 요인
EU의 러시아 석유 수입 부분 금지 美 드라이빙 시즌 시작	경기 및 원유수요 둔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 EU, 부분적인 러시아 석유 금수조치(연말까지 90% 금수 목표)에 합의
  - EU(27개국), 연말까지 해상을 통한 러시아 원유수입을 금지하고, 독일과 폴란드의 북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수입도 점차 중단하기로 합의. 다만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드루즈바 송유관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
  -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연말까지 유럽의 러시아 원유 수입은 90% 감소할 전망. 원유의 경우 6개월 내, 석유제품의 경우 8개월 내로 수입을 금지할 예정
  - \* 드루즈바 송유관은 러시아 동부~우크라이나~벨라루스~동유럽을 거쳐 독일까지 이어지는 세계 최장 길이 파이프라인(4,000km)으로 하루 120~140만배럴의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의 1/3을 담당(나머지 2/3는 해상 수송)

- 서방 제재로 러시아 원유생산 감소 예상. 미국 재고는 감소세 지속
    - 러시아의 4월 생산량은 일일 916만배럴로 전월대비 9% 급감했으며, 이는 OPEC+ 감산 쿼터보다 100만배럴 낮은 수준. 러시아의 생산업체들은 유정을 폐쇄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산 기피로 앞으로도 원유생산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미국 원유재고는 5.20일 4.20억배럴로 같은 기간 5년 최저치를 하회. 비축유(SPR) 재고는 사상 최대규모 방출 영향으로 5.20일 5억 3,200만배럴(20년 7월 6.56억배럴 대비 -18.9%)로 1987년 이후 35년래 최저
  - 주요 기관은 경기둔화를 반영해 원유수요 전망을 하향조정
    - OPEC, IEA는 '22년 세계수요 전망치를 전월대비 각각 일일 31만배럴, 7만배럴 하향
    - IEA는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수요가 '22년 1분기 440만배럴 증가에서 2분기 190만배럴 증가로 둔화되고, 하반기에는 49만배럴 증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가능성
    - 미 정부는 Chevron社와 베네수엘라 국영기업 간 베네수엘라 내 원유생산 라이선스 협상을 조만간 허가할 수 있음을 시사. 시장에서는 허가 시 일일 40만배럴이 즉시 공급 가능하며, 연말까지 80만배럴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전망] EU의 러시아 석유 부분 금수, 성수기 진입 등으로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가격 부담과 경기둔화 우려 등이 상승폭을 제한할 소지**
- EU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에 더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미국의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성수기) 시작 등 유가 상승압력이 건재
    - 성수기 진입으로 정제마진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석유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유가 강세를 뒷받침할 전망(S&P Platts)
  -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가속 ▲성장 둔화에 따른 원유수요 둔화 ▲비축유 방출 ▲이란-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가능성 등 하방압력도 부각되고 있음에 유의
    - 미국이 추가로 빅스텝(50bp)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통화긴축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위험회피 심리로 투기성 자금유입이 둔화 또는 유출될 소지

〈표 3〉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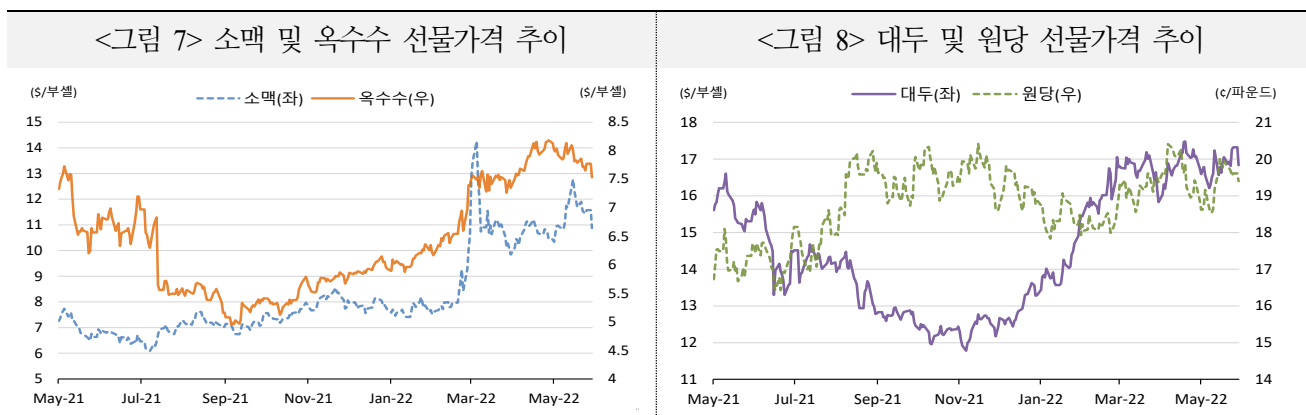
	5월(a) <sup>1)</sup>	'22.2Q(f) <sup>2)</sup>	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WTI	109.3	110 (-4)	103 (-6)	94 (-2)	92 (+7)
브렌트	112.0	112 (-)	105 (+3)	97 (+2)	95 (+8)

주: 1) 5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 II. 곡물

### □ [동향] 5월 주요 곡물가격은 품목별 혼조세

- 5.31일 CBOT 소맥 선물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 옥수수는 6개월 만에 반락
  - 美 남부 평원지역 가뭄, 인도의 수출금지 발표, 러-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불안 요인이 지속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10.875, 전월말 대비 +4.2%)
  - 옥수수는 에탄올 수요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美 파종 가속화와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7.9%). 대두는 전반적인 횡보세 속 소폭 하락(-1.5%)



자료 : Bloomberg, CBOT

자료: Bloomberg, CBOT

### □ [주요 변수] 미국 파종률, 농업기상여건, 식량민족주의강화, 세계 곡물수급 전망 등

- 美 옥수수 및 대두 파종률 가속화, 봄밀은 부진
  - 5.29일 기준 옥수수의 파종률은 86%로 예년 평균(87%) 수준이며, 대두 역시 66%로 평균(67%)에 근접. 반면 봄밀은 73%로 예년 평균(92%)을 크게 하회
    - 옥수수와 대두 파종은 따뜻한 기온의 영향으로 5월 들어 빠르게 진행
  - 파종이 끝난 겨울밀의 품질은 양호 및 우수(good and excellent) 비율이 29%에 불과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작년 같은 기간은 48%)
- 전세계 소맥 재배지역에서의 가뭄 지속
  - 미 남부평원(겨울밀)의 가뭄비율은 4월 중순 90%를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5.24일 현재까지 78%로 고수준을 유지. 북부평원(봄밀)의 가뭄비율도 4.5일 89.9%에서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으나 최근에도 80% 이상을 지속
    - 옥수수와 대두 주산지인 美 중서부는 가뭄비율이 10%를 하회하는 양호한 상황

- 유럽 최대 소맥 생산국인 프랑스는 유례 없는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 조치를 시행. 중동과 북아프리카(주요 생산국이자 수입국), 인도에서도 극심한 가뭄이 지속
- 자국의 수급안정과 물가통제 등을 위한 식량 자국우선주의 강화
  -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5월초 팜유 수출의 전면 중단을 발표. 5월말 수출 재개를 선언했으나 추후 다시 통제조치를 도입할 소지. 인도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5월 중순 밀 수출 중단을 전격 선언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금년 들어 식품 또는 비료에 대한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내놓은 국가는 26개국으로 '08년의 33개국에 육
- '22/23년 세계 곡물 생산 및 기말재고 감소 예상. 대두는 큰 폭 증가 전망
  - 美 농무부 5월 WASDE(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에 따르면 소맥 생산은 7.75억톤으로 전년보다 -0.6%, 기말재고는 2.67억톤으로 -4.5% 예상
    - 우크라이나, 호주 등의 생산감소가 글로벌 감소를 견인
  - 옥수수 생산도 우크라이나, 미국, EU, 중국의 생산감소로 전년 대비 -2.9% 예상. 다만 중국 등의 소비도 줄어 기말재고는 -1.4%에 그칠 전망
  - 반면 대두 생산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작황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0%, 기말재고는 +16.8%로 예상
- [전망] 전반적인 수급불안이 이어지고 있으나 파종이 마무리 되고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도 증대되고 있어 방향성 탐색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
  - 라-우크라 전쟁이 아직 끝날 기미가 안보이고, 주요 생산국에서의 가뭄과 수출 제한 조치도 지속되고 있어 곡물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이 건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가격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파종 이후 농업기상여건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투기성 자금이 유출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누그러질 가능성

〈표 4〉 주요 투자은행들의 곡물 가격 전망(\$/부셸)

	5월(a) <sup>1)</sup>	'22.2Q(f) <sup>2)</sup>	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옥수수	7.890	7.78 (+0.03)	7.75 (+0.25)	7.25 (-0.15)	7.00 (-)
소맥	11.409	11.50 (-0.45)	12.00 (+0.43)	10.33 (-0.81)	9.40 (-)
대두	16.770	16.88 (-0.13)	15.95 (+0.05)	15.25 (-0.25)	15.20 (-)

주: 1) 5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 III. 금속

#### □ [동향] 5월 비철금속 가격은 중국 봉쇄 영향으로 전 품목 하락

- LME 니켈 선물가격, 5.31일 톤당 \$28,392로 전월말 대비 -10.6%
  - 러시아發 공급차질, 재고 감소세 등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 4월 중국의 봉쇄 강화로 인한 전기차 판매 감소 및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구리는 경기침체 우려, 중국의 수입 둔화 등으로 3.3% 하락
  - 알루미늄은 전력비 상승에 따른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제조업 PMI 부진, 중국의 수출 부진 등으로 하락(-8.7%). 주석은 세계경기 우려, 러시아-중국發 공급차질 지속, 가격 고평가 부담 등으로 큰 폭 하락(-13.9%)
- 금 가격은 금리상승 및 달러강세 등으로 하락세 지속(\$1,837.4, 전월말 대비 -3.1%)



자료: Bloomberg, LME

자료: Bloomberg, LME

#### □ [주요 변수] 주요국 경제지표, 통화정책 향방, 품목별 수급 및 주요 이슈 등

- 중국 경제지표 2년래 최악. 미국·유럽은 통화긴축 가속화 전망
  - 중국의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해 전월(-3.5%)대비 하락폭이 확대. 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9%를 기록해 '20년 3월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
  - 미 연준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빅스텝(+50bp)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B/S 축소도 시작할 예정. 물가안정을 위해 ECB도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 달러인덱스는 5.12일 104.851로 2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뒤 월말 소폭 하락했으나 연준 통화정책 가속화로 당분간 강세 전망이 우세
- 니켈 : 타이트한 수급 상황 지속. 중국 전기차 판매 반등. 인니 수출관세 검토
  - LME 재고는 지난해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5월말 7.2만톤(3월부터 8만톤 하회)에 불과



- 중국의 4월 전기차 판매량이 14.1만대로 자동차 생산기지인 상하이, 창춘 시(市) 봉쇄로 전월대비 -40%. 유럽지역의 EV 판매량도 부진(4월 14.98만대, 전월대비 -42%)
  - 테슬라 공장 가동 재개 등 봉쇄 완화로 5월에는 중국 내 주요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 증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용 고품위 니켈 산업 발전을 위해 저품위(니켈선철, 페로니켈 등) 니켈제품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알루미늄 : 유럽 공급부족으로 LME 재고량 추가 감소 전망

- LME 재고는 5월말 45.9만톤으로 지난해 3월 이후 77% 감소하며 '01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 높은 전력요금 등으로 향후 3~12개월 동안 유럽 및 러시아에서 약 150~200만톤 생산이 감소하여 재고량이 추가로 감소할 소지(Mining.com)

○ 구리 : 중국 내 수요 둔화세. 재고량은 정체된 흐름. 투기 순매수포지션 감소

- 중국은 봉쇄 여파로 4월 구리(미가공 구리 및 제품) 수입량이 465,330톤으로 전월대비 7.7%, 전년 동월대비 4% 감소해 '21년 11월 이후 최저치(中 해관총서)
- LME 재고는 5월 중순 이후 감소하는 양상(5월말 15.6만톤)이나 금년 2~3월(7.3만톤 내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
- COMEX 구리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long-short)은 4.26일 -3천계약으로 마이너스로 전환('20년 5월 이후 최초)하여 5.24일 -1.8만계약으로 확대

□ [전망] 주요국 경제지표 둔화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둔화 우려, 통화긴축 가속 등으로 단기적으로 비철금속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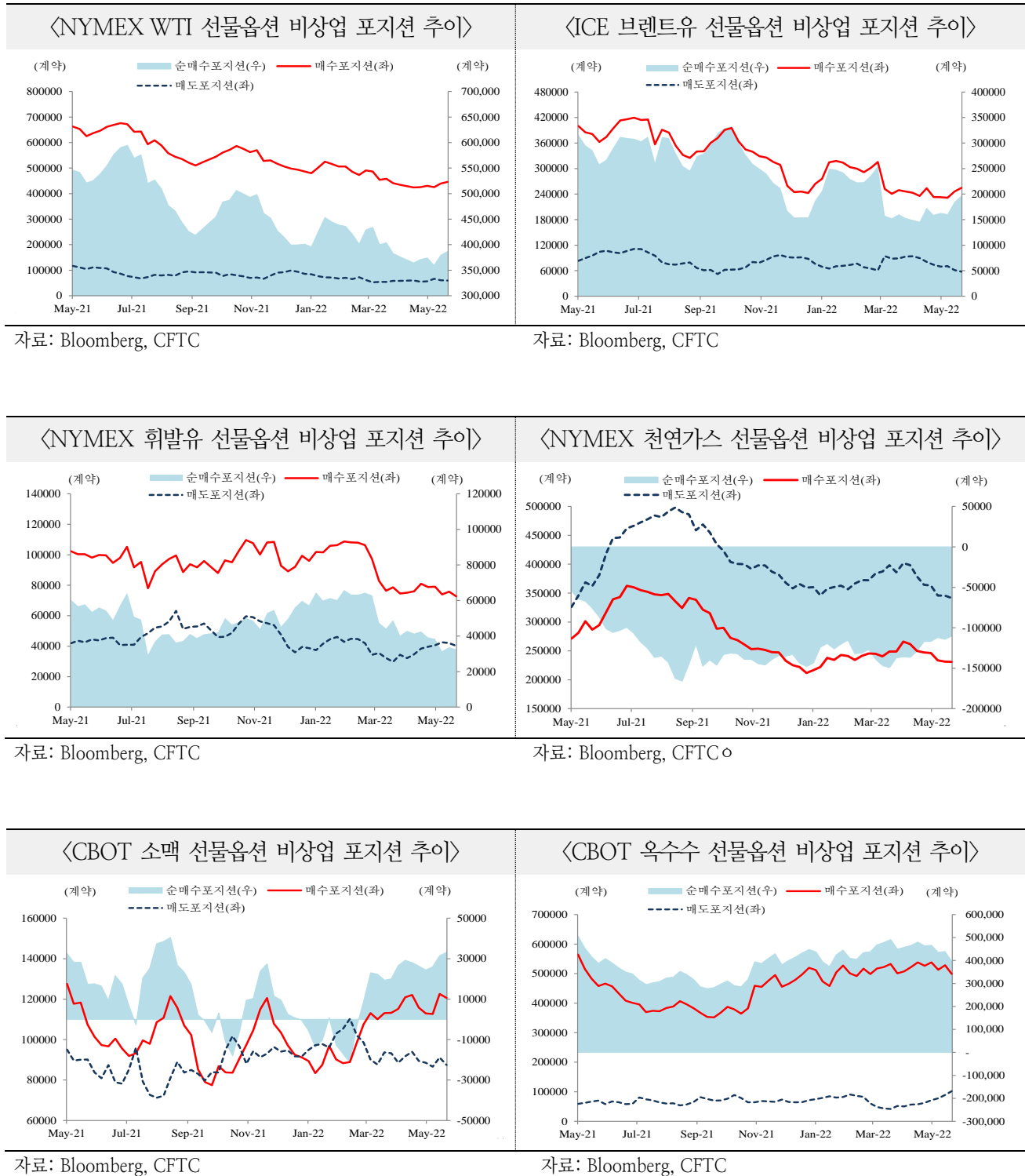
- 친환경 인프라 수요증가로 중장기 상승기조는 유효하나, 최근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통화긴축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등으로 비철금속 가격의 하방압력이 증대
  -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3개월 후 LME 구리가격 전망치를 톤당 \$8,500, 알루미늄 \$2,700, 니켈 \$25,000, 아연 \$3,300으로 하향(Citi)
  - 다만 4월 WB의 원자재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구리 가격은 칠레의 물 부족, 페루의 노동쟁의, 중국 제련소의 신용리스크 등으로 8% 상승할 것으로 전망

〈표 5〉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요 기초금속 가격 전망(\$/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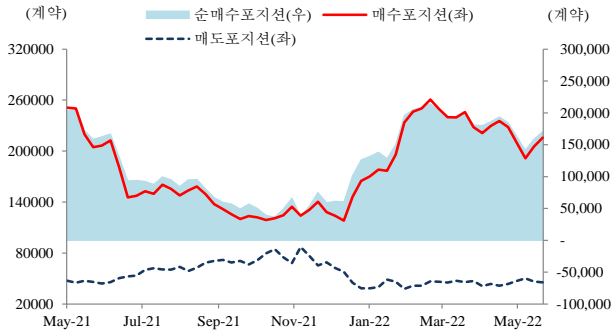
	5월(a) <sup>1)</sup>	'22.2Q(f) <sup>2)</sup>	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구리	9,366.5	10,000 (-200)	10,000 (-133)	9,833 (-)	9,542 (-42)
알루미늄	2,857.8	3,450 (-50)	3,400 (-125)	3,225 (-)	3,217 (-17)
니켈	23,134.3	29,750 (+500)	27,750 (+1,000)	26,000 (-)	25,000 (+1,000)
아연	3,737.6	3,800 (-)	3,700 (-)	3,650 (+50)	3,642 (+59)

주: 1) 5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첨부) 주요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Non-commercial) 포지션 Ch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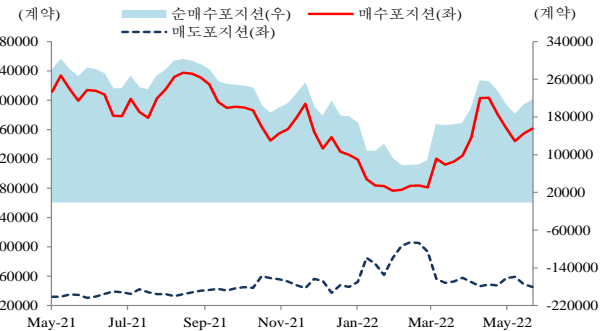


〈CBOT 대두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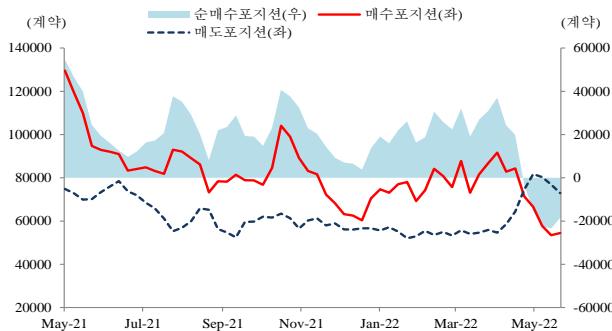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원당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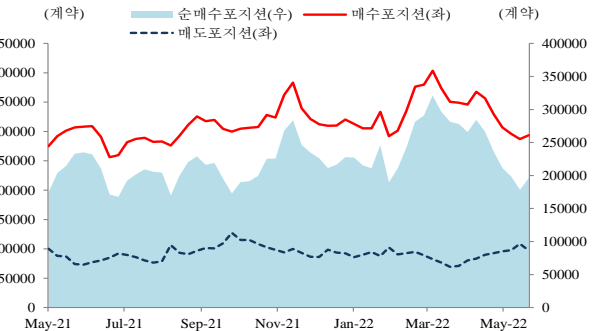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구리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금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5 혹은 kimhj@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